



01. 진로지도자로서의 역할과 퍼실리테이션 기법

학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자로서의 사명과 역할 ▪ 진로지도 현황과 개념 ▪ 퍼실리테이션 기법
학습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가 제시하는 진로지도자의 사명감을 토대로나만의 진로지도 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 ▪ 국내 진로지도 현황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구체적인 진로지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활용하여 진로지도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

<진로지도의 첫 걸음>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로지도 전문가로서의 사명 그 다음에 진로지도 이외의 프로그램들, 어떻게 수립해야 될지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학생들 어떻게 수업에 참여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진로지도 전문가로서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교과목을 맡고 계시든 아니면 취업 진로 교과목을 맡고 계시든 알게 모르게 이제 진로 지도의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로지도를 현장에서 아마 하면서도 나름대로 목표를 다들 가지고 계실 거 같은데요, 저 역시도 이제 뜻하지 않게 이 이 분야 일을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진로 지도자는 이런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여덟 가지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보시면서 어떤 목표를 한번 가졌으면 좋을지 같이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학교 학생들이 학교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생활을 나가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 준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학생들이 직업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해 나가고 취업을 한다든지 창업을 한다든지 그런 의식을 고취해 나가는 것들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들 참 중요하겠죠. 세 번째로 자신의 성격이나 흥미나 적성이나 이런 것 들을 통해서 자기탐색을 평생에 해야 되는 작업이 있지만 우리 학창시절에 우리학생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거 같고요. 그다음에 자신의 적성에 부합한 어떤 직업, 기업, 산업, 취업정보 아주 구체적인 정보들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일들, 이런 것들도 선생님 참 학교생활 하다 보면 등한시하기 쉬운 건데요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 우리 학생들이 해당분야에 나가서 갖춰야 될 정보 지식 기술 태도 그리고 역량을 쌓아주도록 도와주는 것들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취업생활에서 취업생활에 적응하고 직업에

적응하고 그 학생들이 어떤 말은 경력을 커리어 성장을 해 나 갈수 있도록 생애 전반의 설계를 도와주는 작업들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꿈과 비전을 성취해서 건장한 사회 구성원으로 인도해주는 역할도 중요 하겠죠?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각 개별 개별 행복한 삶을 누리고 나아 갈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우리가 진로 지도자가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진로지도자의 역할이, 도대체 얼마나 많아 이런 생각이 들 거 같은데요. 저는 크게 이제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역할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교사로서 하는 역할이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코치로서의 아마 역할도 있을 겁니다. 어떤 답을 주는 거는 아니지만 그 내담자 우리학생들이 스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코칭 하는 역할들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김연아 선수를 했던 아스코치라든지 그쵸 박지성선수를 했던 히딩크 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코치겠죠 그쵸 그들의 역량을 이끌어 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이것과 달리 컨설턴트는 어떤거냐면요. 작은 답을 주는 겁니다. 명료하게 조금 차갑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리포트를 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개선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 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거겠죠 또 한편으로 카운셀러가 있습니다. 컨설턴트와 전혀 다른 역할이 되겠죠.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학생들의 말을 다시 귀 기울여 들어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 주고 기쁨을 함께 해주는 역할들, 굉장히 사실 중요한 역할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들이 카운슬링 역할을 하는 교사에게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카운슬링 마음으로 다가가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멘토의 역할이 있을 거 같은데요, 부모님. 부모님 그쵸 대부 대모의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멘토를 하는 어원에 기하면 왕이 떠났을 때 왕을 왕의 자녀가 왕자가 왕으로 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주는 것, 때로 이끌어 주는 것 이상으로 그쵸? 역할을 해나가는 것들 아버지 같은 역할을 또 멘토 로서 해야 됩니다. 할 역할이 너무 많으시죠? 개인적인 제 이야기를 하나 들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여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여선생님을 좋아해서 그 여선생님이 이름도 기억을 못하는데도 항상 겨울에 이렇게 코트에 손을 넣어 주시는 기억이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중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었는데요. 중학교 때 또 만났던 여선생님이 참 좋았습니다. 제가 여선생님들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영어선생님이셨었는데요. 우리 때는 영어를 중학교 때 배웠답니다. 요즘학생들은 뭐 유치원 때도 배우기도 하는데요 교장선생님보다 더 나이 많은 선생님이셨는데요 아옴탑유얼보이에서부터 알파벳부터 모든 걸 중학교 때 처음 배웠는데도 교과서를 한번 읽다보면 선생님이 “야 철상이 니 식씩하다 야” 이러면서 맨날 칭찬해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교과서 통째로 외울려고 했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영어를 참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 때를 가다보니까 영어공부를 좀 사실 등한시 했습니다. 전공을 뭘 선택해야 되나 고민할 때 전혀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공을 나중에 영어를 선택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학생들에게 전해주는 선생님들의 그 따뜻한 온정 그래서 어떤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그 선생님이 학생을 배려하는 마음과 따뜻한 온정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도 교육현장에 있다 보면 사실 교육이라는 것이 굉장히 느리게 변하다보니까 어떨 때는 정지화면 같지 않습니까? 이 녀석들 또 이야기했는데도 똑같이 또 반복하고 실수를 반복하고 이런걸 보면 좀 알밋고 내가 정말 이게 변화 하는가 이런 아마 현장에 있다 보면 굉장히 미시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두뇌에는 이렇게 뉴런 이라는 기억이나 감정의 마음을 담당하는 내장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런이 많으면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과목 이라든지 암기도 잘하니까

공부도 잘하겠죠? 근데 이 뉴런 이라는 것은 우리 세포와 똑같아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줄어들다 라고 합니다. 선생님들도 나이가 들다보면 깜빡깜빡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뉴런과 뉴런을 연결해주는 시냅스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 뉴런과 뉴런의 접전이 일어나면서 요즘 시대 이야기하면 융합 통섭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혀 서로 다른 것이 연결을 일으켜내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거든요. 이것이 대부분 교육을 통해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당장에는 우리 학생들 아끼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역시도 그랬었고 그때는 참 선생님들 말씀 잘 안 듣고 어긋나는 행동도 하고 사실 몸이 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들이 해주신 말씀이나 온정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제 마음속에 깊숙하게 있다 보니까 조금 씩 조금씩 또 배움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면서 지금의 성장을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꼭 선생님들 따뜻한 온정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앞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로지도의 이해>

진로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진로(進路)’라 하면 흔히 학생들의 대학 진학이나 전공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로란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현재 최고위직에 몸담고 있는 리더에게조차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진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올바른 진로교육이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큼니다. 우선 학생들에게 있어 진로교육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기 위한 진학, 전공, 성격, 흥미, 적성, 강점 등의 자기탐색에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진로교육은 사회인들이 자신의 직업에 적응하고, 현재의 업무능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잠재된 역량개발을 통해 사회적 성장과 새로운 커리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도모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사회적으로는 직업정보, 자격정보, 취업정보, 기업정보, 업종정보와 산업 트렌드를 전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배양하기 위한 직업훈련교육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렇듯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매우 다양한 형태의 진로지도 교육을 광범위하게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형태의 교육을 지칭하는 진로지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꿈’과 ‘행복’입니다. 다시 말해, 개인이 자신의 꿈을 찾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애전반에 걸쳐 도움을 주는 모든 행위를 ‘진로지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로지도는 체계적인 단계를 거쳐 진행되어야 하는데요. 교육부는 학교 급 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2016년 4월에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진로교육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차원의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기존의 1차 계획은 초·중·고등학생의 양적인 진로체험 기회 확대에 집중했던 반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용될 이번 2차 계획은 대학까지 학교 급별로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진로교육을 하는 데 무게가 실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학기제와 이어지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를 올해 일반고 37개교에서 시범 실시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초·중·고등학교 1000곳에 확산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순으로 진로지도활동에는 어떤 차별성을 둘 수 있을까요? 우선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진로인식’의 단계로, 학생들은 이 단계에서 자유학기제를 대비하게 됩니다. 이에 적합한 진로교

육 활동으로는 교과 연계형 진로교육, 현장 견학형 진로체험, 강연·대화형 진로체험이 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지도는 ‘진로탐색’의 단계로, 자유학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이죠. 이 때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반교과 연계형 진로교육이 연계 진행되며, 도·농간 진로체험 격차 해소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진로지도는 본격적으로 진로를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이 때의 진로지도는 자유학기제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는데요. 진로·진학 교육과 더불어 대학·학과 관련 진로체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또한 인턴십을 통해 실질적인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나아가 선취업·후진학을 지원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진로설계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학교에서의 진로지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진로설계까지 마친 학생들은 대학교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설계도에 따라 진로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갈 준비를 갖추기 위해 이 때 필요한 것은 취업과 창업의 연계가 짜임새 있게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입니다. 특히나 진로교육이 대학 정규 교육과정으로 권장되면서 학생중심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죠. 나아가 인턴십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해 자신이 선택한 직군의 업무환경을 경험함으로써 직군에서 요구되는 역량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발하는데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은 학생 스스로 관리하기에는 다소 버거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때 지도교수제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면 성공적인 취업·창업으로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진로지도과정을 이끌어가기 위해 진로지도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지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진로지도 전문가라면 이력서,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 작성법부터 면접대비 전략부터 학생의 자존감과 취업의식을 고취하는 스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지식과 역량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데요. 이 수많은 역량들은 크게 스킬적 요소, 마인드적 요소, 환경적 요소, 개인적 요소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진로지도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요소가 달라지는 거죠. 우선 대표적인 스킬적 요소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법, 면접대비전략, 디지털 매체 활용전략을 비롯해 검사도구 활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지도 전문가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적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리와 성격을 분석하는 스킬과 대인관계 능력, 올바른 직업관과 직업윤리, 더불어 긍정 마인드와 자존감을 키워주는 능력들이 바로 대표적인 마인드적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로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환경적 요소로는 규모별 맞춤 취업전략, 산업 및 업종 분석력과 취업환경과 동향 분석력이 있으며, 개인적 요소로는 학점, 자격증 관리능력, 대외활동 운영, 시간 및 목표관리 능력이 있으며,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이를 충족시킬만한 올바른 비전을 제시해주는 능력 또한 진로지도자에게 요구됩니다. 그럼 이제 진로지도의 과정을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1년 단위로 운영되는 진로지도 과정의 경우, 총 4단계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특성 찾기’입니다. 이 단계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활동으로는 크게 행복한 삶과 진로 설정, 그리고 나의 특성 찾기가 있죠. 나의 특성을 찾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직업세계 속으로’ 들어가보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직업의 의미와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직업세계를 탐색함으로써 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추는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직업의 의미와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추고 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진로를 탐색해야 합니다. 진로를 탐색하는 단계에서 진로지도자는 학생들이 중학교 이후의 진로를 탐색하며 다양한 직업인 역할 모델을 탐색하여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직업윤리를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진로지도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는 진로 결정을 준비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진로지도자는 학생들의 합리적인 진로의사결정을 돕고 학생 개개인이 희망 직업을 선택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중학교 이후의 진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진로계획을 실천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학기를 기준으로 진로지도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면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프로그램은 인천 부평 동중학교에서 진행된 진로탐색 프로그램입니다. 앞에서 살펴 본 1년 과정과 비슷한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게끔 이끌어주어야 합니다. 자기이해와 더불어 기본 역량이 갖춰지고 나면, 이제 일과 직업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직업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죠. 건강한 직업의식이 함양되고 나면 진로설정과 관련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탐색하고 인터넷 검색 및 현장 체험학습을 통해 적극적인 직업현장 탐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스스로에 대한 이해, 바람직한 직업의식, 풍부한 직업정보가 갖추어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미래 진로를 설계해볼 수 있게 됩니다. 해당 예시 프로그램을 토대로 앞으로 선생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설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걸음 더! 꿈Job이 TIP>

청중을 이끄는 퍼실리테이션(Facilitation) 기법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학생들 반응이 없다고 보면 선생님들도 재미가 없으시죠? 아주 간단한 기법 몇 가지만 이용을 하셔도 우리 학생들 자연스럽게 수업에 이끌 수 있는데요 오프닝 기법으로는 1:1에서 1대 그룹으로 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역지로 선생님이 지정 하는 거 보다는 제비뽑기 식으로 이렇게 1:1 파트너를 정하면 좋거든요 숫자를 그죠 1 1 이렇게 하신다거나 a a+ 이런 식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뽑으면 서로가 누가 뽑았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떠들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1:1로 이렇게 파트너를 제비뽑기로 뽑아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파트너들끼리 이제 앉아있으면 둘이서 이제 눈을 마주치거나 이러면 학생들 분위기가 막 킁킁 거리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분위기가 유지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아주 가벼운 게임들을 해주시면 좋겠죠? 말 주고받기 게임도 좋은데요. 그날의 선생님이 하시는 강의 주제나 또 아주 중요한 키워드 문장들을 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이 끊어지는 친구가 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엔 손잡고 가위바위보해서 이기는 걸 선정하고요 세 번째가 수평수직박스입니다. 선생님들 해보셨어요? 이렇게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하셔가지고 누가 먼저 박수를 치나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긴 친구들하고 진 친구들한테 인사도 하고 서로 이제 규칙도 정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또 한편으로 좋은 것 중의 하나가 이런 손가락으로 해서 그림들 이렇게 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하고 여러분 진로 수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반의 모르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면 학생들이 조금 서먹서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림과 그림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말을 하면서 넌 누구니? 이러면서 넌 오늘 기분이 어때? 이렇게 하면서 그날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넌 진로준비 잘하고 있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면 그냥 나누는 거 보다 학생들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조금 그림카드 같은것도 활용하면 아주 좋은데요. 어떤 분은 보니까 그림카드를 항상 이렇게 가지고 와서 그날의 강의 주제하고 그날의 컨디션하

고 그날의 강의 주제와 똑같이 생각이 떠오르는 단어들 카드를 골라서 그걸 가지고 서로 모둠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시고 그림 카드는 많으니까 마음에 드는 그림카드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요즘 이제 캐릭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송이나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인물 캐릭터들을 학생들이 이제 가져오도록 하는 겁니다. 수업 중에 이제 바로 하셔도 좋고요 준비물로 잡지나 아니면 뭐 어떤 신문이나 아니면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오려 와가지고 내가 왜 이런 캐릭터인지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다보면 굉장히 더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냥 막 자기소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모둠을 만듭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이 혼자 다 진행 하시는 거 보다는 이미 모둠을 잘 구성하신 수업이나 또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들끼리 이제 할 때 마다 모둠을 처음에 정해놓으면 계속해서 갈수 있으니까 학생들 간의 모둠명을 서로 정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구호도 한번 정하도록 해보고, 율동 이렇게 춤도 이렇게 한번 춰보도록 하면 좋겠죠 뭐 노래까지 있으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 잘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우리 학생들 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성원들 간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발표는 어떻게 하고 어떤 순번으로 하고 누가 이제 -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도록 해주고요. 마지막으로 수업의 규칙, 선생님 진행하시는 수업에서 어떤 규칙을 지킬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수업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는 것 보다 우리 학생들 하다보면 훨씬 더 잘하거든요 스스로 뭐 떠들지 않기 또, 조원들 팀장들 이렇게 정하고 나면 뭐 어떤 친구들은 상명하복 하겠다 라던지 즐겁게 하겠다 던지 수업시간에 떠들지 않겠다 던지 서로 늦지 않겠다 던지 그런 규칙들을 학생들이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일일이 그런 규칙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들이 굉장히 서로 모둠의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고 앞으로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학생들을 이제 진행을 하다보면 선생님들도 아마 외향형 선생님도 계시고 내향형선생님도 계시게 같은데요. 학생들도 똑같습니다. 외향형 학생과 내향형 학생이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외향적인 선생님을 외향적인 학생들이 좋아하고 내향형 선생님을 내향형 학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무래도 외향적인 선생님이면 외향적인 수업의 스타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지마시고, 외향적이라 하더라도 외향적인 수업도 하시면서 일정부분은 내향적인 수업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거냐면요. 학생들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적인 수업을 하더라도 한번 조용하게 생각해보도록 하고 글을 쓰도록 해보고 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도 좋고요 반대로 좀 내향적인 선생님은 그렇게 하시면서 동시에 또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평가도 훨씬 좋아지고 수업의 질도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론을 여러분 수업에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이제 토론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저도 많은걸 배웠었는데요. 찬반의견, 우리가 흑백논리에 빠지지 않고 우리 반대편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힘을 배우기도 하고요 서로 또 상대방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수업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업을 하면 서로 이제 우리가 선입견과 편견과 왜곡된 부분을 또 일으키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자연스럽게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성의견 반대의견도 제비뽑기를 통해서 해볼 수도 있을 거 같고요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한번 적용을 해보시면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더 선생님들 참여 하시는 거 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 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찬반 주제를 정하면 좋은데요 뭐 주제는 선생님이 자유롭게 정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시사 상식에 있는 것들도 좋고 신문이나

방송이나 최근 이슈들도 다루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뭐 제가 한 몇 가지 주제 간단하게 이렇게 보편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된다. 우리가 진로에서 많이 하는 이런 주제들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에 가야만 한다. 비호감. 외모라면 요즘 성형을 해야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도 될 수 있을 거 같고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스마트 폰 사용을 학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학업에 방해가 된다. 아니면 문제가 없다 이런것도 될수있을거같고요 독서는 그 어떤 수단보다도 강력한 무기다 학교란 재미없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아니야 재밌는 것이다 이런 찬반토론의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들 결과들을 도출하게 되면 학생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학교생활을 할수있겠죠 그래서 인생은 계획하고 살아야된다 아니야 즉흥적으로 살아도돼 이런 서로 관계속에서 이야기해 나가다보면 좋은 결론들을 만들 수 있거든요 토론방법도 아마 이렇게 조금 정리정돈을 하면 좋은데요 풀미니라는 사람이 이야기한 여섯가지 이제 방법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런 토론방식으로 진행하면 좋다 라고 이야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논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제로 할건지 이제 정하고 찬성팀이 있다면 어떤 친구 한명이 임논이라고 하는데요 삼십초 또는 1분 어떤 주제로 하려고 하는지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결론부터 내는겁니다. 핵심 메시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지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이유나 설명, 그래서 객관적인 언론의 자료나 또는 주관적으로 느껴본 주변의 에피소드나 사례들을 모으도록 하시고요, 네 번째로는 상대방의 반론을 꺾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예상되는 반론은 무엇이 있고 그게 강점은 무엇이 있고 또 한편 취약점이 무엇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대안을 정리해보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항상 예외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대방을 인정해주면서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정교하게 가다듬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에서는 자신의 이제 주장을 심리적으로도 또는 논리적으로도 재확인을 해서 아주 거시적인 가치중심의 발언도 있을 거 같고요 아주 미시적이지만 자신의 이제 문제를 가지고도 풀어나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최후발언, 일본발언권 이렇게 주시면서 수업을 하면 굉장히 수업이 알차게 수업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첫 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모듈1 모듈2로 구성이 될 겁니다. 모듈1에서는 진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15차시 정도 이야기를 드릴거고요 이 이야기만으로도 여러분이 수업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들어보시고, 수업에 적용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모듈2에서는 NCS 기반의 직업지도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건데요 요즘 이제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고 해서 엔씨에스 역량기반의 이제 진로지도를 많이 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학생들이 어떻게 역량 중심으로 나가야될지 선생님들도 아마 쉽지 않으실 거 같은데요 로직의 이제 열 다섯 가지 정도만 하더라도 각 직업별로 필요로 나오는 역량이 뭔지 어떤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런 로직을 아시면 또 여러 선생님들이 자연스럽게 다른 직업들도 유도해나가는 데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한번 따라와보시면 수업도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한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하시면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훨씬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니까요 끝까지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